

“ ‘하나님의 도성’ 건설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 두 도성의 이야기 -

한때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천년에 걸쳐 굳게 지켜졌던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아직도 역사가들에게 여러 가설을 제시케 하고 있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옛 신(神)들에 대한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 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AD412년 경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용기 있는 변론을 펼쳐 나갔다. 그의 22권의 긴 책에서 첫 열 권에서는 옛 신(神)들이 로마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로마는 많은 군대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받았으며 문화를 방어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교도 신(神)들에 대한 예배는 로마를 악의 구렁에 몰아넣었다 한다. 그리고 로마는 자체의 부패로 멸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다음 열두 권의 책에서는 그의 역사철학을 전개 시키면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하와의 타락 이후 아벨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어 두 도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도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아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진 천상의 도시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와 고대의 바벨론, 로마와 같은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지상의 사회로 구분하고 마침내 지상에서의 도시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한다. 어거스틴은 두 사회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마지막 운명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종교 개혁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두 개의 왕국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구별이 애매모호한 때에 어거스틴의 두 도시 개념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북한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도시마다 산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의 후에 노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고, 뱀(마귀)의 타락한 후손 가인 라멕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칭되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대립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세속의 도시와는 대조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 세상 왕국이 눈에 보이는 반면에 거룩한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환영이 아닌 실제로, 그것은 세상 도시는 사라져 버려도 그 나라는 확실히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다.

인간 모두는 세속의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느부갓네살이 7년에 걸친 그의 형벌이 끝나고 그의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후 이전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상의 도시의 시민으로서, 무너질 도성을 세우고 있는 복녘땅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하나님을 증거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세계복음화의 교두보가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6년 3월 4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위에 2022년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원로장로 추대식, 향존직 은퇴식, 연말시상식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학교는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022년 1월1일 0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시작전 3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교회 회복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울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22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가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깊은 밤이 지난 후 ”

■ 창 32:26-32
 율해의 사자성어로 채택된 말이 ‘貓鼠同處묘사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입니다. 공작자들의 부패를 보여 주는 말입니다. 2위는 人困馬乏인곤마핍,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에 치친 우리의 상황을 염두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는 묘사동처의 모순도, 인곤마핍의 시련도 사라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숙임수로 아버지와 에서를 숙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했고, 객지에서 격강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후 많은 자녀를 얻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 압박강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상황에서 그의 태도와 결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을 살펴보면 새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1. 무능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는 불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건너가게 한 후 홀로 남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잠 28:1)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갔던 그가 이제는 엄청난 가족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괴롭히는 것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생각하는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그는 돌베개 베고 찬 이슬 맞으며 ‘부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며 애원하던 유랑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력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 것 없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며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은 이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2.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따르면 야곱은 밤을 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밤을 지새운 야곱의 필사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인격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너는 어떻게 살았으며 네 인격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야곱은 발꿈치, 협잡꾼, 술수에 능한 자의 이미지를 가진 악명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어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 하에 있는 새 사람 야곱을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가 이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며 오로지 자기 목표에만 집착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야곱이 압박강에 그 몸을 씻듯 우리도 속사람과 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3. 회개를 실천하는 야곱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33:1)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숨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교활함, 술수, 인기응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진정성, 겸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보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에 칼을 들고 기다리던 에서도 감동 받았습니다. 그는 달려와 야곱을 안고 눈물로 그간의 마음고생을 씻어내고 위로했습니다. 야곱은 회개했고 에서는 용서했으며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읽고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파멸의 위기에 있었을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깊은 밤 압박강에서 야곱이 재발견한 신앙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 죄와 허물투성이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안용근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엡 5:19-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7(요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484(53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32:26-3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깊은 밤이 지난 후”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43(34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원로장로 추대식-

오후 5시 ·인도: 안용근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8:1-2 인 도 자
찬 송	213(348) 다 함 께
기 도	이민호 집사
성 경	행 13:1-3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말 은 이
장한 어머니상 시상	말 은 이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말 은 이
원로장로 추대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순종하는 교회” 설 교 자
* 찬 송	210(24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찬진 권사 II부: 김양숙 권사
성 경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영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특별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2. 공동의회 / 다음 주일(1월2일) 찬양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2.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 예배 안내 /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31일(금) 오후 11시 30분부터 기도로 준비하다가 2022년 1월1일 0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이 시간 신년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신년감사 예배: 1월2일(주) 새해 첫 주일을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55명	620명	2,275명	480명	2,173명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안목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우연적 사건으로 해석치 않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뿌린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재촉하시었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죄까지 안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에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안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